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에서 만나는 작품 '모나리자와 마주하다'는 루브르 박물관이 최초로 제작한 가상현실 체험작품이다.

# 가상현실에서 '모나리자와 마주하다'

지맵, 20일까지 개최...루브르 박물관 제작 최초 가상현실 체험작 8분 분량 동영상·사운드·인터랙티브...한글설명서 읽은 후 관람

매혹적인 그녀, '모나리자'를 만났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그녀를 '탈리시'만 볼 수 있었다면 VR(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그녀는 마치 내곁에 있는듯했다.

2일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에서 만난 작품 '모나리자와 마주하다 (Mona Lisa: Beyond the Glass)'는 루브르 박물관이 제작한 최초의 가상현실 체험작이다.

해외 주제 프랑스대사관과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1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미디어아트와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국제 디지털 문화 축제 '디지털 노벨'을 진행하고 있다.

지맵은 대중적인 디지털 콘텐츠 공유를 위해 디지털 노벨 프로그램 중 '모나리자와 마주하다'를 오는 20일까지 3층 제4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관람은 대형 화면 앞 의자에 앉아 HMD(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기계 조작에 익숙하다면 조작법을 익힌 후 루브르박물관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다면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모나리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은 8분 분량으로 길지 않지만 동영상과 사운드, 인터랙티브에 의한 가상현실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박물관 회랑에 걸린 작품들을 지나면 레오나르도의 대표작 '모나리자'를 만난다. 액자 속에 있던 '모나리자'는 화면 속에서 나에게로 확대가왔다.

3차원의 가상현실 공간에 자리한 모나리자의 다양한 움직임 등을 통해 제작과정과 지난 500년 동안의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있으며 적외선 스캔 방식을 통해 수집한 보존 연구 결과와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를 만들어낸 가벼운 안개가 스며있는 듯한 느낌과 흐릿한 윤곽으로 특정 부분들에 환영을 만드는 스푸마토 기법 등도 소개된다.

줄곧 나를 바라보던 모나리자가 몸을 돌려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다빈치가 평생 자연을 연구하고 유심히 관찰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공간은 흥미롭다. 마지막 장면은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다. 360도로 펼쳐지는 산과 계곡,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가상의 풍경 속 주인공이 되는 기분은 근사하다.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내레이션이 한국어 더빙 없이 영어로만 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못내 아쉽다. 전시장에서 만난 관람객들도 "신비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지만, 영어 설명만 있어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듯 해 아쉽다"는 반응들이었다. 차선으로 전시장 입구에서 배포하는 한글 내레이션을 꼭 읽고 관람하길 바란다.

지맵을 처음 방문했다면 현재 열리고 있는 '디지털 공명' 전도 함께 둘러보자. 특히 3층 로비에서 만나는 '데미스, 버려진 AI'가 흥미롭다. 노진아 작가가 인공지능을 꿈꾸는 로봇과 대화하며 기계와의 감정적 소통에 대해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으로 로봇과 직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세대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고라니의 초상... '널 사랑하지 않아'

15일까지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문선희 초대전

5월 광주를 겪은 어린이들의 시선, 구제역으로 살처분 당하는 가축,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의 기록

사진작가 문선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을 끊임없이 해왔다. 직접적인 표현 대신 역사의 현장을 말하는 담벼락, 외롭게 서 있는 첩담 등을 통해 은유적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의 작업들은 '묻다' (2015),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2016), '거기서 뭐하세요' (2016) 등의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을 만났다.

지난해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문선희 작가 초대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린다. 지역 젊은 작가 발굴·지원을 목표로 하는 신세계미술제는 지난 1996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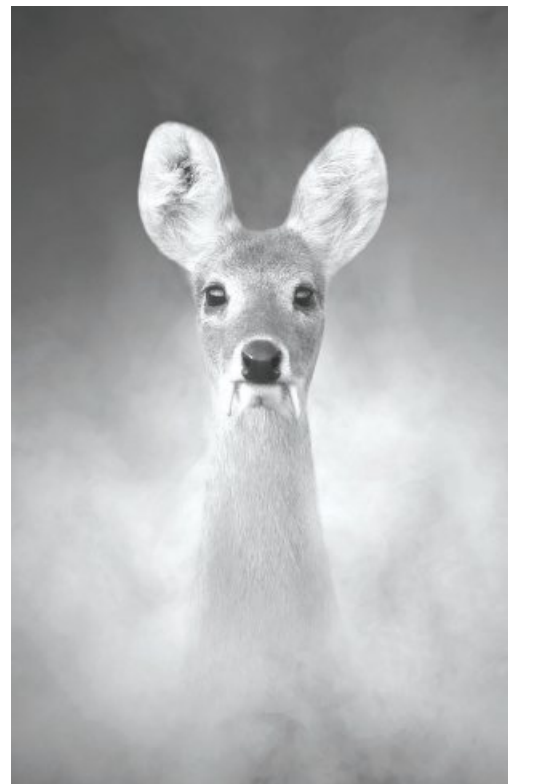
미술제 심사평에서 문 작가의 작업은 "예술이 사회 현실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정서적이고 감각적이지만, 그 내부에 파고든 사회 정서적 서사는 그 무엇보다도 신랄하고 날카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널 사랑하지 않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문 작가가 화면에 담은 소재는 '고라니'다. 전시작은 흑백 졸업앨범 형식을 차용해 각 개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고라니 초상사진 연작 35점이다. 슬픈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고라니 한 마리 한 마리의 모습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문 작가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고라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라니는 한반도와 중국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동물이자 치타·코알라와 같은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 동물로 분류돼 해마다 수십만 마리가 사라지고 있다.

작가는 고라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전시장에는 새끼 고라니 작품과 성체 고라니 작품을 구분해 전시했다. 성체 고라니는 생김새의



'라니 111'

차이로 수컷과 암컷의 구분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 시기의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작의 작품 한 점, 한 점은 언뜻 보면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저마다 다른 생김새와 제작각의 성격과 감정이 담겨있다.

특히 작가는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인 틀을 사용하여 오직 그들의 존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경과 색상을 제외하고, 더 나아가 몸의 형태도 생략함으로써 개성을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이는 고라니 스스로 자기 존재와 처지를 드러내게 하는 작가의 의도다.

문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상상의 경계', 광주비엔날레특별전 '메이투데이'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9차례 개인전을 개최했다. '묻다' 등 사진집도 출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피아노 품은 '오지희 첼로 독주회'

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제3회 오지희 첼로 독주회'가 5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첼리스트 오지희는 공연에서 글라주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엘레지 내림 라 장조 작품번호 17번'과 보로딘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나단조',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삼중주 1번 사단조 비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두개의 소품 작품번호 2번'을 선보인다.

연주에는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대학 석사 과

정을 마치고 독일 드레스덴 국립 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심정운과 광주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이 함께한다.

9세에 첼로를 작한 오지희는 호남예술제와 한국독일 브람스협회 주니어 콩쿨, 광신대 음악콩쿨 등 다수의 콩쿨에 상위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등과의 협연 무대를 펼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예약은 예약사이트(<https://url.kr/jfpahn>)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10-3421-3911.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문학집배원'에 이승우 소설가·이수명 시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배원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 기다리는 소식이나 물품이 온다면 더없이 반갑다. 오늘날의 시대는 문화도 전달이 된다. 문학 콘텐츠, 다시 말해 좋아하는 문인의 시와 영상 콘텐츠를 배달되면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아름다운 시와 문장을 배달하는 제16기 문학집배원으로 이승우 소설가와 이수명 시인을 위촉했다.

문학집배원 콘텐츠는 문학광장 홈페이지, 문학광장 유튜브 채널, 메일링 서비스로 만날 수 있다. 메일링 서비스는 문학광장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시 배달은 안도현·나희덕 시인, 문장 배달은 성석제·은희경 등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문인들이 담당해왔다.

이번에 문학 집배원으로 위촉된 이승우 소설가는 지난 1981년 계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종교적이며 초월적인 세계를 다룬 작품들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마음의 부력', '이국에서' 등을 펴냈다.



이승우 소설가



이수명 시인

이수명 시인은 1994년 '작가세계' 가을호에 '우리는 이제 충분히' 외 4편으로 신인상 수상을 계기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작으로 '물류창고' 등이 있으며 최근 '도시가스'를 발간했다.

한편 문학집배원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오는 집배원을 상징해 기획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시와 문장 영상콘텐츠를 격주로 선보이고 있으며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문인들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위한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공모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종년)은 예술인들의 일상회복 및 유지를 위해 희망지원금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로 광주 소재의 창작공간을 임차하고 있으면 가능하며, 지원규모는 1인당 50만원씩 총 100건이다. 신청 자격은 장르구분 없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단체이면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2022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시각예술 및 문학분야' ▲20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2022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2022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202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022 야외공연장작업지원사업, ▲2022 미디어아트극제제2기지원사업 선정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11월 7일부터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 및 예술인보통소통센터([www.artbodum.or.kr](http://www.artbodum.or.kr))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와 세계를 만들어보지 않겠나'

임수범 개인전, 4~13일 예술공간 집...5일 작가와의 대화

일상의 삶이라 하면 화면에 담기기 어려운 이미지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다. 나무와 해파리가 함께 등장하고, 생명을 얻은 바위도 보인다. 분화구와 무성한 풀숲도 어우러졌다. 작가의 상상 속에서 펼쳐진 세상은 흥미롭다.

평범하게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을 벗어나 무한한 시간 속에서 '나의 세상'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전시회가 열린다.

청년작가 임수범 작가의 첫번째 개인전이 4일부터 13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나와 세계를 만들어보지 않겠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임 작가는 120호 5개가 연결된 600호 대작 등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임 작가는 작가 노트에서 "걸어야 100년 남짓 살아가는 인간으로, 무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찾아가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한다.

작가는 자신이 마주한 도시의 온갖 이미지들과 하루하루 쏟아져나오는 신문기사 속 수집된 이미지, 오래된 토기와 같은 과거 유물까지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해 공간이 존재된 독특한 풍경을 완성했다.

전북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임 작가는 광주와 전주 등에서 10여 회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2022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입주작가로 활동중이다.

오는 5일 오후 2시에는 아티스트 토크가 열린다. 관람 시간 낮12시-오후 5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바위 생명의 섬'